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10/27~2025/11/02]

2025.11.03

[로봇] 엔비디아의 시대

-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을 확대하는 삼성, 현대차, LG, 두산 등
- 삼성 그룹과 협력이 본격화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중공업에 이어 삼성의료원과 협력
- 노르웨이 1X의 가사용 로봇 '네오'의 상용화 추진. 대당 2만달러, 월 499달러에 출시

[방산] 내년에 주목할 수주

- LG넥스원, 중동 장거리 대전차미사일 개발, 실드 AI 드론 탑재 유도탄 개발 등 모멘텀 시동
- APEC 기간 동안, 캐나다/인니/필리핀/호주 등과 방산 관련 협력 협의
- 현대로템, 이번에는 페루. K-2 및 K808 145대 직도입/285대 현지 생산 추진

[항공] 부담스러운 LCC의 기재 확대

- 대한항공, A350 여객기 줄이고 화물기 7대로 변경하여 도입
- 아시아나, 밀라노와 부다페스트로 유럽 노선 확장 추진. 대한항공과 합치면 데일리 운항
- 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석 유지 시정조치 변경 관련 협의에 열려있다는 언급

[조선] 잠수함의 시대

-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5천톤급, 4척 이상,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 전망
- 캐나다 커니 총리의 한화오션 방문. 캐나다 CPSP 잠수함 연내 결정 주목
- 삼성중공업, 한국형 LNG 화물창 탑재하여 첫 상업 운항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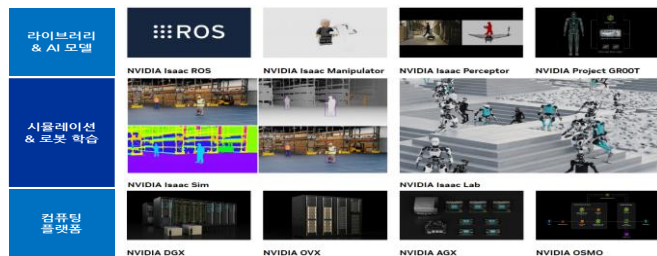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1)

[엔비디아의 시대]

-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한국에 GPU 26만장 공급을 선언하면서 AI 및 로봇 업계에 온기 확산.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차(보스턴다이나믹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피지컬 AI 개발 등 탄력 불을 전망.
- 엔비디아는 칩(Jetson Thor)부터 시뮬레이터(Isaac Sim) 등 각종 개발 도구, 데이터 생성기(Cosmos), AI 모델(GROOT N1)까지 로봇 개발에 필요한 A to Z를 제공. AI 시대에서 패권을 잡았던 엔비디아는, 물리 AI(로봇) 시대에서도 패권을 잡고 있는 모습. 로봇의 개발 인프라(엔비디아), AI 모델(구글 등), HW 밸류체인(중국)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 가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한국이 살아갈 길은 무엇일지 고민 필요. 엔비디아가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풍부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특화 로봇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주는 11월 5일~8일 로보월드와 11월 6일 테슬라의 주총이 예정되어 있음. 국내 로봇 기업들의 로봇 사업 변화 및 테슬라 휴머노이드 비전 확인 기대. 로봇 관련 모멘텀은 지속됨.

Key Chart: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것들



자료: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엔비디아의 시대

APEC 기간 동안 엔비디아발 로봇 기대감 확대. GPU 확보에 따라 피지컬 AI 개발 탄력 기대. 동시에 엔비디아의 로봇 업계 내 파워를 재확인. 11월 초에도 각종 이벤트 예정되어 로봇 기대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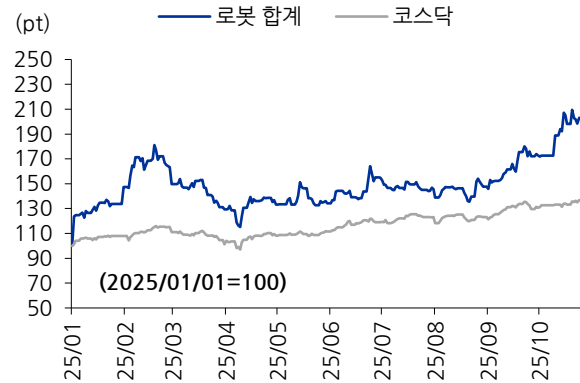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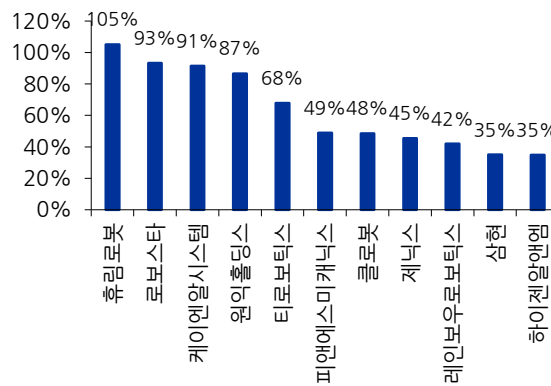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0/27~11/02)

[전통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서울병원과 수술로봇 만든다
- 레인보우로보틱스, ARPA-H 과제 수행. 의료 양팔 로봇 개발
- 로보락, 로봇 청소기 보안 평가서 중기업 중 유일 '양호'

[휴머노이드]

- 홀리데이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프라이데이' 공개
- 현대차그룹-日도레이, 달탐사 로버·휴머노이드 공동 개발
- 로보티즈 'AI 워커', 엔비디아 '로스콘'서 조명

[부품/SW/기타]

- 젠슨 황 "삼성 세계 최고, 엔비디아 로봇칩 전부 생산할 것"
- 젠슨황, 네이버와 산업용 AI 로봇 플랫폼 공동 개발
- 두산,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전략 동맹
- LG전자,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시동 건다
- 뉴로메카,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개발
- 삼성SDI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시장 적극 대응"
- 케이엔알시스템, 생산기술연과 로봇 특화 신소재 공동개발
- 한화로보틱스, 마음AI와 피지컬 AI 로봇 상용화 추진

[Global]

- 안 르쿤 "인간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월드모델이 온다"
- 오픈마인드-서싱트 로봇 AI 보안 '암호화'으로 구현 협력
- 中 산업용 로봇 생산량, 9개월 만에 지난해 연 실적 추월
- 中 유니트리, 강력한 전력 성능 갖춘 新 4족 로봇 출시
- 중국군, '딥시크' 앞세워 AI 군사화. 로봇 부대 현실로
- 노르웨이 1X, 집안일 하는 로봇 '네오' 사전 주문 시작



Weekly Keyword

내년에 주목할 수주

신규 수주 소식이 없어 방산주는 한 템포 쉬어가는 중. 2026년도에는 중동, 유럽, 미국발 수주 기대에 더해 무인기와 우주 등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할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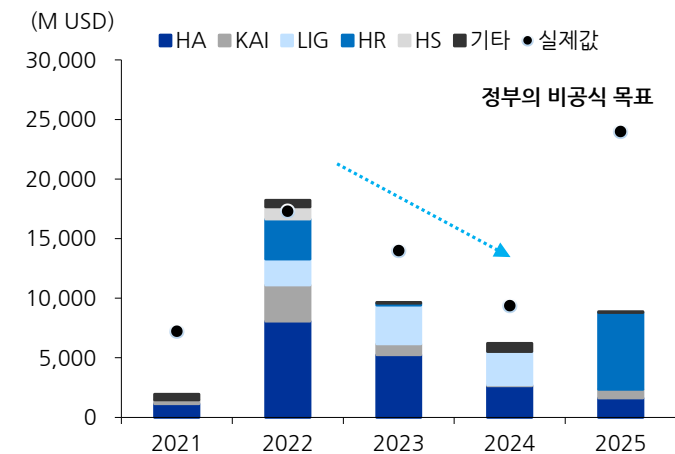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49)

[내년에 주목할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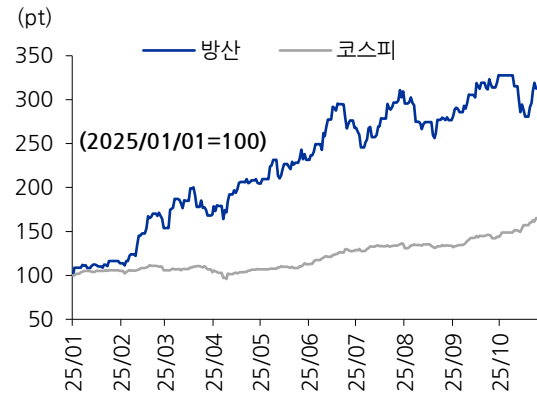
- 잠잠한 신규 수주 소식과 한 템포 쉬어가는 주가 흐름 속 26년도 주목할 방산 포인트를 정리.
- 내년에는 (1) 이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중동발 수주(이라크 전차, 사우디 MNG), (2) 이후 후속으로 루마니아 전차/장갑차, 에스토니아/노르웨이 천무, 방공 등 유럽발 수주, (3) UTS 및 자주포 사업 등 미국발 수주, (4) 무인기 (5) 우주 사업 등이 깔려있음. 지난 수년간 기저가 올라온 점은 부담스러우나, 아직 기대할 포인트는 다수 있다는 판단.

Key Chart: 해외 방산 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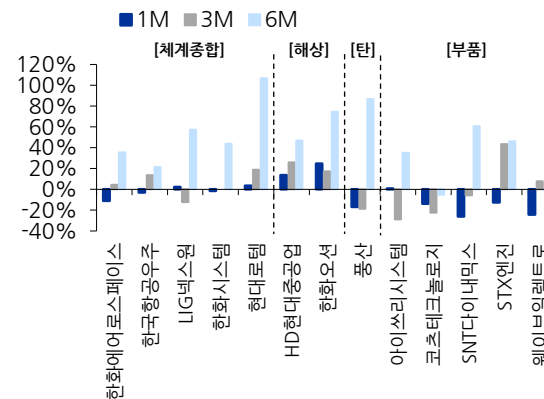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10/27~11/02)

[수주/계약]

- 한화, LIG넥스원과 '천궁 II 부품' 1.5조원 계약 체결
- 페루, K2-K808 145대 직도입 후 285대 현지 생산
- 칼리두스, 한국 내 사업 모색. 한-UAE 방산 협력 본격화
- LIG넥스원, 중동 방산업체와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
- KAI, 인니 국영기업과 기본훈련기 KT-1 '기술 이전' 계약
- 한국, 필리핀과 KF-21-FA-50 추가 수출 협상

[기업별 이슈]

- LIG넥스원, 美 실드AI에 '드론 탑재 유도탄' 단독 납품
- LIG넥스원, 핀란드 ICEYE와 위성 개발 MOU
- LIG넥스원, 천리안위성 5호 본체 이어 탑재체 개발 수주
- KAI, 증거인멸·비자금 의혹 정면반박
- 현대로템, 폴란드 K2 생산-MRO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타]

- 李 대통령, APEC 기간 동안 세계 각국과 "방산 협력 확대"
- 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에 앞서 '증액' 꺼낸 李대통령
- 방사청장, 올해만 네 번째 사우디 GAMI 수장과 회동
- 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 지연. T-50 미국 수출 '경고등'
- 425사업' 마지막 5번째 軍 경찰위성 모레 미국서 발사

[글로벌]

- 美 보잉사 방산부문 노조 임금협상안 또 부결. 장기 파업
- 폴란드, 안드릴과 바라쿠다 미사일 공동개발·생산 추진
- 튀르키예, 15조원 규모 英 유폴라이터 구매 계약 체결
- 튀르키예, '한국기술 바탕' 알타이 전차 신형 첫 인도
- 네타냐후, 휴전 19일만에 "가자에 강력한 공격" 명령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부담스러운 LCC의 기재 확대

올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재 도입 현황은 전년과 유사한 흐름이나, LCC의 기재 도입 확대가 눈에 띈.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지속적인 기단 규모 확대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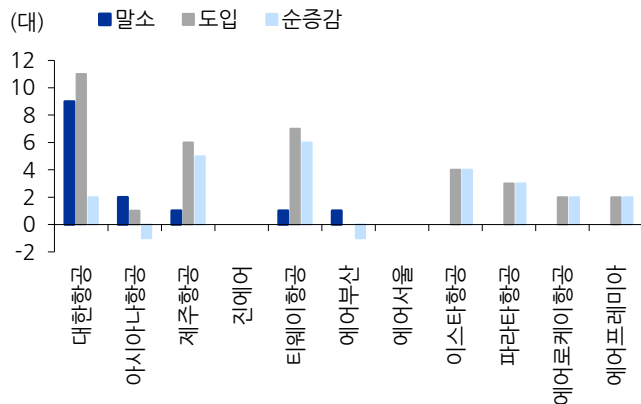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9)

[부담스러운 LCC의 기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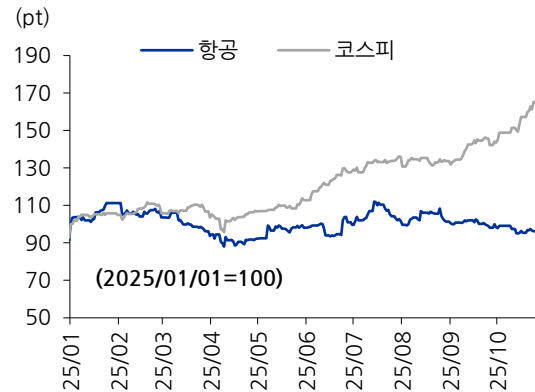
- 2025년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기재 도입 현황은 도입 36대, 말소 14대로 순증가 22대를 기록 중. 2024년 연간 도입은 40대, 말소 18대 말소 순증가 22대로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 올해 순증가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티웨이항공(+6대), 제주항공(+5대), 이스타항공(+4대), 파라타항공(+3대)로 LCC 중심의 기단 확대가 이루어지는 중. 대한항공은 도입 수는 11대로 가장 많으나, 노후 기재 등 9대를 처분하면서 순증가는 2대에 그침. 현재 LCC 업황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기재 공급 증가가 부담스러운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구형 B737 3기를 매각할 가능성도 언급.

Key Chart: 기재 도입/말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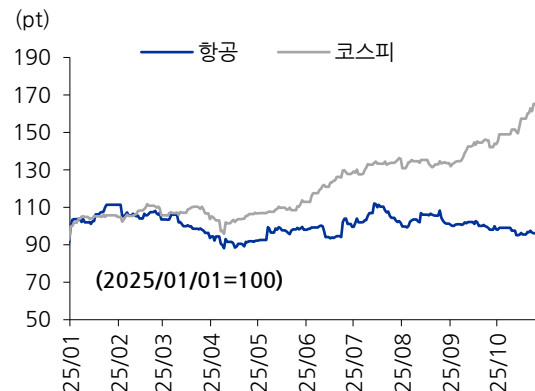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0/27~11/02)

[여객/화물]

- 이스타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인천-마나도 신규 취항
- 한국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 미주노선 취항 추진
- 러시아 외무차관 "한국과 직항 재개 논의 중"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A350 33대 도입 변경. 여객기 7대 화물기로 전환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혼란 최소화, 뉴욕 취항 검토
- 대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과 인니 공동운항 확대
- 대한항공, IATA '의약품 항공 운송 품질인증' 자격 갱신
- 대한항공, CAPA 선정 '올해의 아시아 항공사'
- 아시아나항공, 유럽 노선 확장. 밀라노-부다페스트 취항
- 제주항공, 7년 된 항공기 3대 내놓는다
- 티웨이항공 부산발 日 노선 확대

[기타]

- 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석 유지 시정조치 변경 열려있어"

[글로벌]

- 美, 멕시코 항공사 미 노선 13개 취소 "양국 항공협정 위반"
- 비엠텐항공, 에어버스 A321neo 100대 최종 확정 주문
- 유나이티드, 8년 만에 홍콩 경유 '베트남-미국' 노선 재개
- ANA 자회사 에어재팬, 내년 3월 피치항공과 브랜드 통합



Weekly Keyword

잠수함의 시대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소식에 기대감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 핵 잠수함은 국내 안보상 필요하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캐나다/폴란드 잠수함 수출 여부가 더 중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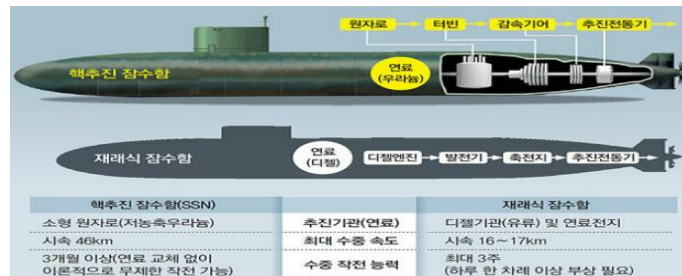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9)

[잠수함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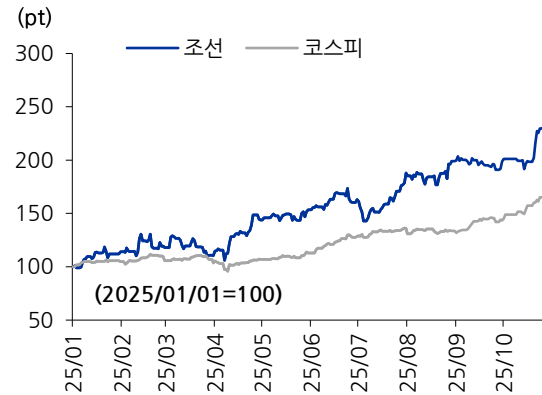
- APEC 기간 동안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선 부활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승인을 언급. 핵잠은 원자력 추진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잠수함으로, 핵 연료(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료 공급 관련 두가지 가능성이 부상. (1) 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거나, (2) 한국이 직접 수입한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안. 두가지 선택지 모두 미국의 후속 조치가 필요. 추가로 원자로와 선체 구조, 소음 방지 기술 확보와 핵잠 건조 시설 건립도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군은 5천톤급 이상, 4척 건조, 2030년대 중반 배치 가능성을 언급. 척당 2조원 내외 추정. 핵잠 도입은 국내 안보상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재래식 함정과 같이 수출이 용이하지 않은 점은 유의할 필요. 필리 건조시 추가 투자, 건조 비용 상승 리스크도 존재. 기대 요인은 미국의 핵잠 선체 건조 참여 등.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당면한 캐나다 및 폴란드 잠수함 수주라는 판단.

Key Chart: 핵 잠수함 vs 재래식 잠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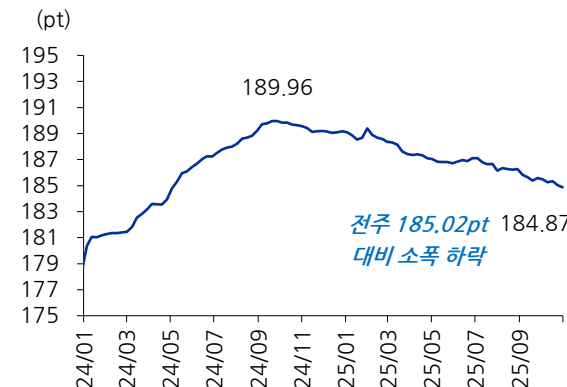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0/27~11/02)

[상선/해양]

- 카타르 나킬랏, 수출입은행서 LNG선 25척 건조자금 확보
- 현대·삼성중, 모잠비크 LNG 17척 슬롯 내년 1분기로 연장

[특수선]

- 필리핀 대통령 APEC서 한화조선 만나 잠수함 도입 논의
- 캐나다 총리, 한화조선 거제조선소 방문해 장영실함 시찰
- "캐나다 자재 쓸 수 있나" 캐나다 K-잠수함 잇단 검증
- HD현대, H&W 美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건조
- HD현대중공업, 장보고-II 성능 개량 사업 수주
- 트럼프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 필리 조선소서 건조할 것"
- 5천톤급 이상 핵잠수함,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
- 軍, 핵잠 건조 "기술·전문 인력 상당 수준 확보" 자신감
- 한국 해군, 캐나다-페루 해군과 연쇄 회담. 안보·방산 협력
- 한화, 잠수함 주요 세일즈 대상국 '사우디·모로코·이집트'

[기타]

- 정기선, APEC 기조연설 "미 함대 건조·조선소 재건"
- 삼성중, LNG선에 한국형 화물창 'KC-2C' 최초 적용
- 삼성중, 2030년까지 설계 자동화를 두 배 이상 확대
- 한화 "필리조선소 50억달러 투자, 장기간 걸쳐 진행할 것"
- 한화조선, '도크 점거' 하청노조 470억원 손해배상 취하
- 韓 사우디 산업차관 회담 "사우디 조선소 건설 협력"

[글로벌]

- 美 "중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키로 합의"
- 조선업 살리고 싶은 美·日 조선업 양해각서 체결
-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 "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